

세계 경제 동향

● OECD, 중간 경제전망 발표...세계 성장률 소폭 상향 ■ '26-9-23 OECD

- 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와 각국 정부의 지원조치가 중동전쟁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으며, 다수 국가가 대외 충격에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
 - AI 확산이 세계 투자·생산·무역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하며 2026년 세계 성장률을 2.9%(6월 전망 대비 +0.1%p), 2027년 3.0%(-0.1%p)로 전망, G20 물가상승률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해 2026년 4.1%(+0.1%p), 2027년 3.6%(+0.5%p)로 상향
 -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선별적·한시적 에너지 지원정책을 권고, 잠재성장을 제고와 공급충격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. 한편 한국은 올해·내년 성장률 전망 모두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(3.7%, 2.6%)되어 강한 수출·생산 증가세가 부각
- ❖ 고유가가 4분기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국내 농자재 수입단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실제 안정화 시점을 지속 확인할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9월 전산업 체감경기 99.1로 소폭 하락...제조업·비제조업 엇갈려 ■ '26-9-29 한국은행

-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「2026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(ESI)」에 따르면 9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(CBSI)는 99.1로 전월대비 0.5p 하락, 10월 전망은 99.6으로 전월과 동일
 - 제조업 CBSI는 99.5로 전월대비 4.3p 하락, 제품재고(기여도 -1.8p) 및 신규수주(-1.0p) 부진이 주요 하락 요인
 - 비제조업 CBSI는 98.9로 전월대비 2.2p 상승, 자금사정(+1.0p) 및 업황(+0.7p) 개선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추석 연휴 대목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
 -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와 소비자동향지수(CSI)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(ESI)는 99.9로 전월대비 0.5p 상승. 한편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(BSI)는 12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
- ❖ 원자재구입가격 체감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, 사료·비료 등 농자재 구입가격 전가 흐름과 연계 점검 필요

● 9월 소비자물가 2.9% 상승...농축수산물 0.3% 하락 ■ '26-10-2 국가데이터처

-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.43(2020=100)으로 전월대비 0.3%, 전년동월대비 2.9% 상승
 -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.3% 하락. 공업제품은 석유류 상승(+14.8%)을 중심으로 4.2% 상승
 -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.0% 하락(사과 -9.2%, 배추 -15.2%)한 반면 축산물 3.7% 상승(국산쇠고기 +6.6%, 수입쇠고기 +7.2%, 돼지고기 +1.9%). 수산물은 4.5% 상승(갈치 +12.9%)
 - 전월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류 상승(+14.2%)을 중심으로 2.3% 상승(배추 +19.1%, 사과 -7.6%, 배 -19.0%, 달걀 -3.4%, 닭고기 -1.1%)
 - 가공식품은 전년동월대비 2.1%(빵 +5.7%), 외식은 2.5% 상승
- ❖ 석유류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어 농가 수익성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USDA, 재생농업 시범사업 지원 7억→10억달러로 확대 ■ '26-9-29 USDA

- 미국 농무부(USDA)는 2027회계연도 재생농업 시범사업(Regenerative Pilot Program) 재정지원을 기존 7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29일 발표, 토양 건강·수질·농장 회복력 개선을 위한 보전체계 도입 농가를 추가 지원
 - 환경품질인센티브프로그램(EQIP) 6.5억달러·보전관리프로그램(CSP) 3.5억달러를 배정, 하나의 통합 신청서로 여러 재생농업 관행을 묶어 신청 가능하도록 간소화
 - CSP의 자원관리 문제 해결 비율 진입장벽을 100%에서 75%로 낮춰 참여 문턱을 완화, 전년도(2026회계연도)에는 5,100여 건·8억5,100만달러 규모로 집행
 - 경종·초지·임업 등 운영 유형별로 특화된 모니터링·평가 방식을 복수로 제공하며, 신규·숙련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설계
- ❖ 화학투입재 의존도를 낮추는 재생농업에 대한 미국의 재정 확대 흐름은 국내 친환경·탄소중립 농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어 지원체계 설계에 참고할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고유가 지속에 농·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 추가 지원 ■ '26-9-29 농림축산식품부

-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·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하고, 4분기 소요분 791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
 - 면세유 가격이 2월말 대비 약 25% 상승한 수준(경유 1,122원→1,401원, 등유 1,115원→1,386원)을 유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
 - 농업용(농기계 3종 면세경유·원예시설 난방유) 660억원, 어업용(면세경유) 131억원으로 배정, 지난 5월에는 지급 한도도 상향(면세경유 138.4원/ℓ→176.2원/ℓ 등)한 바 있음
 -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, 집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
- ❖ 고유가 장기화 시 재정 소요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, 국제유가 추이에 따른 추가 소요 가능성 점검 필요

● CPTPP 가입 시 농업 생산 연평균 7,100억원 감소 전망 ■ '26-9-28 농림축산식품부

- 산업통상부·농식품부 등 5개 부처는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공개,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미가입 대비 0.38%p 높아질 것으로 전망
 -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6.3조~6.7조원 증가(이 중 중소기업 기반 1.1조~1.2조원)하는 반면, 농업 생산은 연평균 7,100억원, 임업 606억원, 수산업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*
 - *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, 국내외 산업·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한 결과
 -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공청회 전에 분석 결과를 조기 공개해 설명회·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
- ❖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 결과(품목별 개방수준)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, 농업 부문 피해 보전·대응 방안 논의에 이 수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속 점검 필요